

요한에게 임한 예수그리스도의 계시

—복음으로 여는 요한계시록—

사무엘상 17:45, 요한계시록 1:1-3

정윤돈 목사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사탄에게 속아 불신앙하고 죄를 지어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땅 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다락방전 도운동의 제자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강단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힘을 얻고 위로 를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계획과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 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결국 은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내용이다. 만약 우리들이 다윗의 고백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라고 고백한다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기쁨을 놓쳐서는 안된다.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본문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항상 계시를 주셨다. 하늘 보좌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서 그 계시와 미래와 뜻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여러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계시를 주시고,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주시다. 램프들도 공부하기 전에 깊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란다. 직장생활도, 학업도 힘들다. 가정과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은 더 힘들어진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도할 수 있으면 다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을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서밋이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많은 책의 내용 대부분은 잘못된 해석들이었다.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해석들이 있다. 우리는 오늘에 집중하고, 오늘 서밋이 되고, 복음을 누리며 감사하면 된다. 지금 기억나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EU 10개국을 만들어지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지금 EU 회원국은 27개국이다. 이러한 주장은 요한계시록 17장 12절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였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사이비, 신천지처럼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음적인 교회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성경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1.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이해를 위한 전반적인 개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1) 우선 첫 번째에서는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요한계시록은 총 22 장으로 되어있다. 1 장부터 3 장까지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 일곱 교회에는 세 종류의 교회가 있었다. 꾸지람만 듣는 교회, 꾸지람도 듣고 칭찬도 듣는 교회, 칭찬만 듣는 교회이다. 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당연히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초급, 중급의 믿음을 뛰어넘어 칭찬만 듣는 고급, 초특급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절대목표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할 것들과 칭찬받는 부분을 붙잡기를 바란다. 4 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의 보좌와 24 장로, 4 종류의 짐승, 일곱 등불(일곱 영)이 있는 장면을 보게 된다. 요한은 하늘보좌의 축복과 응답을 받았다. 요한계시록 4 장 9 절에서 11 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2 는 선택, 24 는 신구약에 구원을 받은 숫자, 증인을 의미한다. 2 배의 축복은 장자의 축복,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들의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이신가를 알려주고 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항상 기뻐하면 된다. 어떤 문제이든지 속지 말아야 한다. 5 장은 일곱 인을 떼실 어린 양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5 장 4 절에서 7 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이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예수를 의미한다. 숫자 7 은 완벽함을 뜻하며 뿔은 권세를 의미한다. 이 말씀에서 주신 메시지는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인을 떼실 분은 어린 양 밖에 없다. 이 어린 양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즉,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 보면 일곱 인, 일곱 뿔, 일곱 영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숫자의 상징성을 잘 알아야 한다. 7 은 온전한, 10 은 모든 것, 12 는 선택과 구원의 수, 2 은 증인을 의미한다. 여기서 12 지파와 24 장로는 선택 받은 자들을 의미한다. 12 지파에 12 를 곱한 것에 가장 큰 수인 1 천을 곱한 것이 144,000 이다. 144,000 이라는 수의 의미는 구원받은 허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6 장에서 17 장까지에서는 이 땅에 임할 많은 전쟁과 재앙과 핍박과 환난을 기록하고 있다. 그 재앙의 종류는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다. 교회사를 보면 시대시대마다 엄청난 전쟁과 재앙, 핍박이 있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에 더하여 마지막 때에 임할 엄청난 재앙과 핍박도 예언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 모든 재앙과 핍박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조건이 있다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3 장 15 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뜻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를 보고 다 넘어가기 때문에 신비주의나 기적, 이적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 강단메시지의 제자, 말씀, 복음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메시지를 강단을 통해 주신다. 그 메시지 속에서 나의 레마를 발견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에 이유있는 순종과 복종을 해야 한다. 이것이 체질이 되면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여러가지 환난을 만나더라도 기뻐할 수 있다.

③ 다음으로 17장에서 18장에서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유희와 재앙을 가져다 준 사탄과 그의 줄개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음녀 그리고 사탄 나라, 세상 나라로 상징되는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은 당시 로마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시대시대마다 바벨론의 역할을 했던 도시들이 있었다. 독일의 베를린이 그랬고, 일본의 동경이 2차 대전 때 네이팜탄으로 불바다가 되었던 과거도 있다. 여러분의 바벨론, 로마가 깨지고 멸망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18 장 2 절을 보겠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리고 19 장부터 22 장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등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토록 누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5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그 단어는 교회, 사

탄, 재앙,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다. 요한계시록은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한 성도들은 그 어떠한 사탄의 역사와 재앙이 닥친다 해도 결국은 승리하고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대주제이다.

(2) 다음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의 해석방법과 주의할 점이다.

① 처음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은 어려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이해되는 부분만 줄을 긋고 은혜와 영적인 교훈을 받으면서 읽기를 바란다.

②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의 의미를 알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상징의 종류에는 숫자, 짐승, 사탄, 전쟁과 재앙 등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 이 대부분의 상징들은 성경이 스스로 해석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건강한 성경적인 신학을 공부한 교역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네 생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사자는 왕이신 그리스도, 송아지는 충성된 그리스도, 사람의 얼굴은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독수리는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네 짐승들은 구약 에스겔서 10장 14절을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에스겔서 10장 14절을 보겠다. '그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천사)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송아지의 얼굴이었는데 에스겔서에서는 그룹의 얼굴 즉, 천사의 얼굴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두 내용을 함께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네 얼굴의 짐승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이다. 그리고 그 짐승들의 얼굴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계시록의 내용들은 대부분은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조금씩 해석한다면 요한계시록은 가장 어려운 책이 아니라 가장 은혜로운 책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유익함이 있다.

2. 두 번째에서는 계시록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성경의 주제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번 주에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찾아보시기를 바란다.

(1) 계시록을 보면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가장 많이 표현해 주고 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진 참 제사장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본 세례 요한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였다.

(2)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겠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기시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승리의 언약을 굳게 잡기 바란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주이시다. 영적서밋들은 강단말씀을 목상하는 가운데 이 승리의 계시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승리의 계시이다. 예수님께서 이기시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유배지 밧모 섬에서 이것들을 보았다. 서밋의 현장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할 때 6가지 미래전도의 도구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것이 영적인 Leverage, Vessel, Transmission, Nobody, Platform, Outsourcing의 문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도 이끌어 갈 수 있다.

(3) 다음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다. 예수님을 백마를 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백마를 탄 가짜들이 많다. 나폴레옹, 이만희, 허경영도 백마를 타고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가짜 그리스도이다. 진짜 백마를 탄 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4) 다음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이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

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22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메시지를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의 사자로 보내주신 담임목사님의 강단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또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어야 한다. 이만희, 문선명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또 광명의 새벽 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 위에 광명한 새벽 별이 비칠 때 태어나셨다.

(5) 다음으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약속해 주셨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6) 다음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을 보겠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보장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세상의 고난도 어려움도 세상의 부귀영화도 너무 얄매이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승리자들이다. 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계시이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지금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속지 말기를 바란다.

결론으로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발견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말세지말에 우리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바른 계시록과 종말론을 알려주는 것이다. 내일 주님이 오셔도 오늘 자신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공부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인 종말사상이다.

3. Dream, 꿈이다. 우리는 24시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직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소망만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 그러한 믿음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자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를 위해 조금만 집중한다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계시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 계시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편집, 설계, 디자인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한 주간은 우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찾아보고, 요한계시록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목상해 보시기 바란다.

말세지말인 이 시대에 예수생명, 예수능력 안에서 237나라에 1천만 제자를 세우는 주역으로 쓰임 받는 모든 개인과 가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레마를 발견하게 하고 말씀성취의 응답을 받아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서 교회를 살리고 3천 제자를 이루고 1천만 제자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